

장흥, 지역소멸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통했다

출산·청년·정주 정책 등 주효…기관 유치 효과도
인구 감소세 둔화…“많은 사람 지역 정착 지원”

장흥군이 민선 8기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며 인구 감소세 둔화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인구 감소 규모가 둔화되고 있다.

실제 장흥군의 연간 인구 감소율은 2022년 2.45%에서 2025년 0.73%로 크게 낮아졌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임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이 전임 가구의 정착을 돕는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전임 가구에 대해 5년간 최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

~2년차 월 30만원, 3~4년차 월 20만원, 5년차 월 1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결혼장려금 8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300만~1200만원 지원, 2025년부터는 출생기분소득으로 1~18세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결혼·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주 기반 확충도 성과를 내고 있다.

주거 여건 부족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망설이던 가정을 위해 장평면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10세대를 조성한 결과, 현재 34명이 입주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에 학생 수가 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장흥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은 인구정책 우수시군 수상 모습.

넣고 있다.

군은 추가로 장평 우산마을에 유학마을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 지표 역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장흥군 출생아 수는 145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18%)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6.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전월 대비 8명, 4월 3명, 12월에는 20명이 증가하는 등 월별 증가세도 뚜렷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구 지원정책과 더불어 전남소방본부 신청사 이전,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 등 공공기관 유치 효과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 분양률 75% 달성에 따른 일자리·인구 유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본격 운영과 청년 만원주택 100세대 확정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장흥군에 정착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 돌산 우두리 일원 6.5ha 규모…65억 투입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주행사장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돌산을 우두리 전모지구 일원에 약 6.5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저장숲 4개소와 침터숲 10개소가 조성되며, 동백나무·단풍나무·금목서 등 141종 1만8636주의 수목과 팜파스그라스 등 35종 10만6817본 초화류가 식재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 및 국도77호선(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이설되는 대형 지장

가로수 (만나무 등 3종 230주)와 돌산을 주요 도로변의 대형 가로수 (후박 등 2종 110주)를 도시숲 조성에 적극 활용한다.

이는 단순한 수목 이식을 넘어,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남부수종의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도시숲 사업에 착공해 기존 수목 이식과 애기동백 식재를 마쳤고, 현재 박람회장 내 수목 식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협력해 기반공사와 도시숲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박람회 개막 전까지 모든 조성을 완료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주행사장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조감도.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위

기 대응과 탄소저감 효과를 실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 ‘세수부족’ 5년간 예산규모 정체

지난해 450억 지방채 발행…선심정책 지방 필요

광양시의 예산규모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5년 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의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지난 2022년 1조1603억원, 2023년 1조1933억원, 2024년 1조979억원, 2025년 1조1404억원, 2026년 1조1539억원으로 5년 간 1조1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일반회계 예산만 살펴봐도 2022년 9393억원, 2023년 9846억원, 2024년 9018억원, 2025년 9581억원, 2026년 9825억원으로 9000억원대다.

이처럼 철강강만도시인 광양시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는 국내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원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시의 지방세(도세 제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시의 지방세(시세)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 2659억원을 정점으로, 2023

년 1964억원, 2024년 1872억원, 2025년 2029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포스코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 2022년 876억원까지 납부했지만 2023년 79억원, 2024년 78억원, 2025년 159억원으로 최대였던 2022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는 세수가 감소하고 현안사업은 많아 지난해 3월에 걸쳐 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수 증대 없이 시의 예산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고 필요경비도 늘어나고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기 회복과 기업의 신규투자가 없이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선심정책 등을 지양하고 알뜰 재정운용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영광, 농업기계 교육훈련 추진 드론·소형건설기계 등 15개 과정

영광군이 농업인의 농업기계 활용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올해 진행되는 교육은 총 15개 과정이며, 대상은 1485명이다.

세부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1000명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1종) 25명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교육 70명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155명 △도서지역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60명 △생활용접교육 60명 등으로,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교육 위주로 구성됐다.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과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교육은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된다.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50% 보조)이다.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교육은 3t 미만 굴착기, 지게차, 스카더로더 등 3종으로 운영되며, 1인당 교육비는 45만원(50% 보조)이다.

신청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팀(061-350-5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은 만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나주시는 남평읍을 시작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시정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한 2026년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최근 문평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나주, ‘주민과의 대화’ 순회 일정 마무리

20개 읍면동 방문…현장 중심 소통 행정 강화

나주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개 읍면동을 돌며 진행한 ‘2026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남평읍을 시작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시정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한 ‘2026 주민과의 대화 일정’은 최근 문평면을 끝으로 현장 중심 소통 행정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민과의 대화는 나주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마을회

관과 경로당 정비, 마을안길 확장, 포장, 배수로와 도로 정비 등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총 467건의 건의가 나왔으며, 대면 290건, 서면 177건의 정책 제안과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안전건설 분야 310건, 보건복지 분야 49건, 관광문화 분야 24건, 농업 분야 17건, 기타 67건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신청받은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과 직

결된 사안은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생명 도시, 글로벌에너지 첨단과학도시, 500만 관광도시, 균형발전 선도모델 빛가람 혁신도시, 미래인재를 기르는 명품 교육도시, 모든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나주 등 6대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냈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건의에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나주’라는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셨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원근 기자 pose007@

구례,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 추진

전국 최초 단지 조성…수확량 증대·노동력 절감

구례군은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 혁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재배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수확량 증가와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례군은 전국 유일의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에 맞춘 중소형·컬러 수박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품종 생산으로 1인 가구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수박 수직재배는 기존 포복 2줄 재배에서 3줄로 밀식재배가 가능해 생산량을 약 1.5배 늘릴 수 있으며,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선 자세로 관리가 가능해 노동강도를 낮추고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 수직재배 시설은 재배 장치를 커튼 형태로 시설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설치와 철거가 간편하며, 수박 외에도 다양한 과채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작업도 용이해 토양 관리도 또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례군은 2023년부터 국비 확보와 군



특 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박 수직재배 기술을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1.3ha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총 30동 2ha의 생산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은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